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모든 답은 자신에게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비로자나불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로자나불이야. 비로자나불.”

問 如何是毗盧師 師云 毗盧毗盧

근원은 세상에 세 가지 몸을 나타내어 생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멸하게 한다. 하나는 법칙을 내는 부처이고, 또 하나는 응답하는 부처이고, 마지막은 가르치는 부처이다. 이것을 삼신불이라고 한다.

법칙을 내는 부처님의 이름은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비로자나불은 각종 법칙(法)으로 만물을 생주이멸(生住異滅)케 한다. 비로자나불은 청정법신이다. 응답하는 부처님의 이름은 노사나불이라고 하고 중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준다. 가르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불이라 하고 중생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

이 중에서도 만물의 근원이 비로자나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그 비로자나불의 스승은 무엇일까? 조주 스님은 “비로자나불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모든 답은 자기에게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부처님도 스승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있다.”
학승 물었다.
“무엇이 제불(諸佛)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問 諸佛還有師也無 師云有云 如何是諸佛師 師云 阿彌陀佛 阿彌陀佛

과거세에 법장이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48가지 원을 세우면서 불국토를 건설할 것을 맹세했다. 그 뒤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면서도 48대원을 성취할 것을 거듭 서원했다. 드디어 지금부터 10겁 전에 성불했는데, 이름이 아미타불이다. 자신의 서원처럼 극락세계를 세우고 불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중생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무량수(無量壽)이다. 수명이 끝날 때는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산다해 무량수이다. 아미타불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10겁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10번이나 무너져 가루가 됐다가 다시 세워지는 세월이다.

아미타불은 석가모니불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보다 먼저 부처가 됐다. 그래서 모든 부처의 스승은 아미타불이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스승은 누구일까? 그것을 알려면 ‘아미타불!’ 하고 소리 질러 보라. 거기에 스승이 있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스승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구름은 산세를 벗어나고 물 자체는 떨어지는 소리가 없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그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問 如何是學人師 師云 雲有出山勢 水無投澗聲 云不問者箇 師云 是你師不認

흔히 부처님도 스승이 없었고, 근대 말 경허 스님도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부처님도 육사외도가 스승이었고, 과거 6불이 스승이었다. 경허 스님도 직접적인 스승은 없었으나 과거 선 어록 속에 등장하는 많은 선사들이 스승이었다. 스승은 찾으려하면 스승은 어디에나 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도 그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진정한 스승은 그대를 안개처럼 조용히 젖게 한다. 스승의 가르침은 표가 잘 나지 않는다. 진정한 스승은 가리켜 주는 자도 없고 가리킬 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참된 스승은 그대 곁에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원각경

부처와 보살의 수행문답

《원각경》은 수행과 깨침의 법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문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다. 이에 본래성불이라는 입장에서 그 삼매를 어떻게 수행하고 성취하느냐 하는 수행법과 깨침의 법문이다.

제일의 문수보살은 부처님이 과거의 수행자 시절에 일으켰던 청정한 수행법 및 보살이 대승에서 일어난 청정심으로 미래에 대승을 추구하는 말세의 중생이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에서 유출된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을 가지고 보살을 가르쳐서 영원히 무명을 단제하고 바야흐로 불도를 성취토록 한다고 답변한다.

제일의 보현보살은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묻는다. 여환삼매에 대한 그 대상과 주제, 여환삼매의 수행에 대하여 방편과 점차수습을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은 그대로 부동이라서 하깨비인 줄 알고나면 곧 그 하깨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다른 방편수행이 필요 없고, 하깨비를 벗어나면 곧 그대로 원각이므로 역시 점차수행이 필요 없다고 답한다.

12보살 등장해 수행법 질문 이어져 삼매 위한 수행과 깨침의 법문 설해

제사의 보안보살은 수행하는 점자에 대하여 어떻게 사유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방편을 닦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여래의 사마타행에 의거하여 금계를 잘 지키고, 대중과 함께 거주하며, 고요한 방에서 좌선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여법하게 점차로 닦으며, 여법하게 사유하고, 여법하게 유지하며, 여법하게 방편을 닦고, 여법하게 깨치며, 여법하게 교법을 추구하면 모두 미혹되지 않고 번뇌가 없다고 답변한다.

제사의 금강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에 다시 일체의 무명이 있고, 무명이 중생에게 본래 있었다면 무슨 인연으로 여래는 다시 본래성불이라고 하며, 여래에게도 안젠가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묘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또 열반이 없고, 또한 성불과 불성불이 없으며, 허망한 윤회와 비윤회도 없으므로 중생이 일으킨 분별조작의 사유를 통해서 원각의 방편을 얻지 못한다고 답변한다.

제요의 미륵보살은 여래의 대적멸 바다에 노닐고자 한다면 어떻게 윤회를 대치하고, 불보리를 닦는데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고,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마땅히 어떤 종류의 교화방편을 시설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먼저 발원을 하고 올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이장(理障)과 모든 생사 윤회를 상속시키는 사장(事障)의 두 가지 장애를 없애야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한다고 말한다.

제육의 청정해보살은 일체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여래세존께서 증득한 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일체중생이 그대로 구경각이므로 원각의 자성은 차별된 자성이 아니라 평등한 자성으로 존재하는데, 다만 중생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일체의 하깨비 모습을 탈제하지 못하고서 허망에 대하여 수행과정에서 소멸과 미소멸을 말하면서 곧 차별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제칠의 위덕자재보살은 수행자에게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적정의 사마타 수행자, 중생교화의 삼마발제 수행자, 적멸의 선나 수행자의 세 종류가 있음을 말한다.

제팔의 변음보살은 삼종의 모든 방편을 원각법문에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신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스물 다섯 가지의 청정한 선정에 말한다.

제구의 정제업장보살은 원각심의 본성이 청정한다면 중생들은 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망상 때문에 네 가지 선병인 사상(四相)이 형성되어 전도되고, 이로 말미암아 증오와 은애의 경계 발생하여 그에 대한 집착으로 업을 쌓고 생사유전하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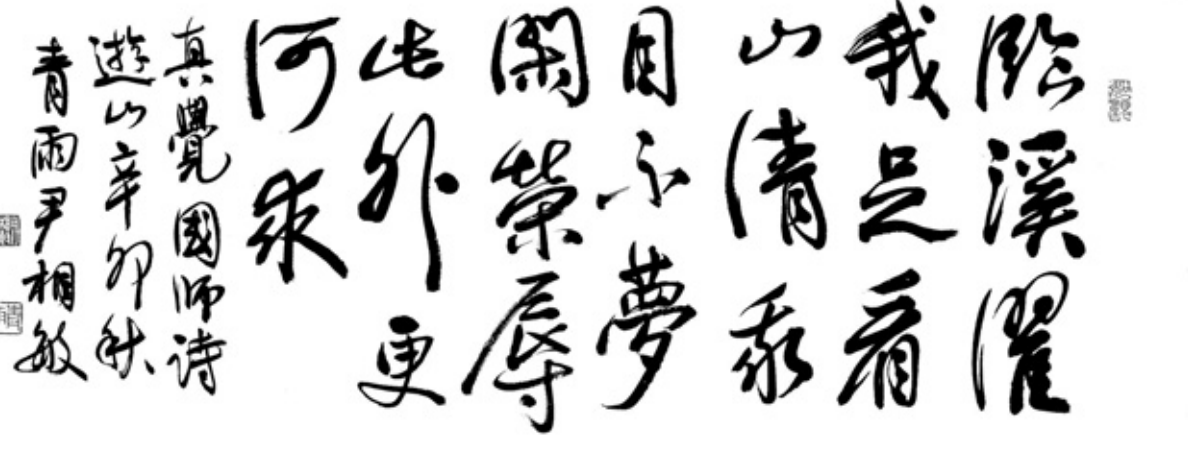
제십의 보각보살은 말세의 중생이 해야 할 다섯 가지 행위 곧 어떤 선지식을 찾고,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떻게 병통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해야만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선지식은 대승심을 일으켜서 바른 지견을 갖춘 사람을 찾고, 법은 작병·임병·지병·멸병을 벗어난 묘법에 의지하며, 수행으로는 선지식을 잘 지키고, 병통의 제거로는 제법에 대한 나와 남 그리고 증오와 애착으로 벗어나며, 발심으로는 허공에 다하도록 일체중생을 내가 다 구경에 원각에 들도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제십일의 원각보살은 아직 깨치지 못한 자의 경우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는데 어떻게 안거해야 하고, 관법 가운데 무엇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대중생활을 하고, 삼종의 기한을 정하며, 방일하지 말고, 서원을 세워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사마타를 닦고, 여래와 보살을 역상하며 삼마발제를 닦으며, 수식관으로 신나를 닦으라고 말한다.

유류분에서는 현선수보살이 등장하여 경전의 제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들어 수지하며, 중생이 수습하면 어떤 공덕을 얻고, 경전의 수지자를 어떻게 보호하며, 이 경전을 유포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를 묻는다. 이에 대하여 원각경은 대방광원각다라니, 수다라요의, 비밀왕삼매, 여래결정경, 여래장자삼차별, 돈교대승 등 여섯 가지 제명으로 말하고, 경전의 공능과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의 공덕에 대하여 말한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진각국사 시



臨: 임할 임
溪: 시내 계
濯: 씻을 탁, 상앗대 도
辱: 욕될 욕
夢: 꿈 몽

청유진하차한국산아임
운산각구외명불정죽계
운산국 경육동이간탁
상묘사
민추시

산놀이[遊山]

臨溪濯我足 看山清我目 不夢榮辱 此外更何求 (임계탁아족 간산청아목 불몽한영욕 차외갱하구)
시내에 나가서는 내 발을 씻고 산을 바라서는 내 눈을 맑게 한다. 부질 없는 영욕은 꿈도 꾸지 않나니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라 - 진각국사



서연가 · 동아미술상 수상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첩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차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집2도 인쇄

현불상 02)2004-8215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새집증후군·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정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해균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차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제(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향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상태표시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현불상 02)2004-8215